



# 해리스, 트럼프 제쳤다

양자 가상대결서 44% vs 42%...트럼프 측 “허니문 효과”  
유권자 56% “해리스 정신적으로 예리”...트럼프는 49%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 가상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 치고 나갔다는 여론조사가 23일(현지시간) 나왔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인소스와 공동으로 1018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날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를 기록, 42%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3%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앞서 이날 1-2일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우세했으며 15-16일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동률을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제3 후보까지 포함한다 가상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2%, 트럼프 전 대통령 38%,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8% 등을 각각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은다자 가상대결의 오차범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은 채,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 범위 밖’ 우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56%는 해리스 부통령(59)에 대해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78)에 대해서는 49%만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고령 논란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81)의 경우 22%만 정신적으로 업무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민주당 후보가 80대의 바이든 대통령보다 20살 이상 어린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80세를 목전에 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야후뉴스와 유고브가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1천7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지지율이 46%로 동률을 기록했다. 3자 가상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로 해리스 부통령(41%)보다 우위에 있었다. 다만 이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던 21일 이전부터 진행됐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선캠프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토니 파브리치오는 이날 캠프가 언론에 공개한 ‘해리스 허니문’ 제목의 내부 문건에서 “주류 언론의 해리스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긍정적일 것이며 이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민주당 및 민주당 진영의 일부를 활기차게 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여론조사가 변화하고 해리스가 당 지지기반을 더 공고하게 할 수 있으나 그녀가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는다”면서 “허니문은 끝나고 유권자들은 다시 바이든의 부조종사로서 해리스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뉴스

## 각국 스타들 “해리스 지지”

영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XCX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 등  
비욘세, ‘프리덤’ 선거송 허락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은 물론 세계적 팝스타들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자넷 모네와 존 레전드, 찰리 XCX 등 유명 뮤지션들이 공개적으로 해리스 부통령 지지에 나섰다. 특히 팝스타 비욘세는 자신의 노래 ‘프리덤’(Freedom)을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래는 전날 해리스 부통령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대선 캠프 사무실을 방문할 때 배경음악으로 울려 퍼졌다. ‘프리덤’은 비욘세가 2016년 내놓은 6집 앨범 ‘레모네이드’에 실린 곡으로, 흑인의 인권과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를 담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남편과 함께 지난해 8월 워싱턴 DC 외곽 페덱스 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비욘세의 월드투어 콘서트에 참석하는 등 비욘세의 오랜 팬으로 알려졌다. /연말뉴스

비욘세 어머니도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했으며, 비욘세의 팬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과 인터뷰를 섞은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찰리 XCX는 해리스 부통령처럼 어머니가 인도계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카멜라 브랫(brat)’이라는 글을 올리며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brat’의 사전적 의미는 ‘버릇없는 녀석’이지만, SNS에선 모범생을 낮춰 부르는 ‘범생이’의 반대말로 통용된다. 해리스 선거캠프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의 대문 이미지를 찰리 XCX의 앨범 ‘브랫’ 커버에 사용된 라인색으로 바꿨다. 해리스 부통령의 ‘쿨한’ 이미지를 내세워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할리우드 스타 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던 조지 클루니가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표명했다. 오랜 민주당 지지자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자금 모금에 크게 기여한 클루니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 능력을 문제 삼아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었다. 원로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연말뉴스

## 마크롱 “올림픽 끝날 때까지 총리 임명 연기”...좌파 반발

좌파 연합 “최악의 정치” 비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새 총리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좌파 진영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저녁 프랑스2 방송 인터뷰에서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새 정부를 구성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현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을 두고는 “그들이 이번 의회에서 어떤 형태론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며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날 NFP가 총리 후보로 내세운 루시 카스테트 파리스 재무국장을 두고는 “중요한 건 정치 진

영이 제시한 이름이 아니다”라며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의회 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총리 후보에 합의한 좌파 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NFP 내 최대 진영인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송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화 전선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마누엘 봉파르 의원도 엑스에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부정”이라고 비판했고, 역시 LFI의 클레망스 게테 의원은 “마크롱은 오늘 밤 그의 권위주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총선 결과에 “승복하거나 아니면 사임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연말뉴스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도 마크롱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녹색당의 마린 톱들리에 대표는 “우리는 이겼고, 공약이 있고, 총리가 있다”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현실 부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파 연합은 앞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공화 전선’ 구축을 촉구하고 나서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파 진영에 정부 구성을 맡기지 않고 범여권 인사를 다시 총리에 임명하기 위해 각종 명분을 들이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다만 총선에서 패배한 마크롱 대통령으로서의 남은 임기 3년의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시각도 있다. /연말뉴스

## ‘트럼프 경호실패’ 美 비밀경호국장 결국 사임

바이든 “새 국장 임명할 것...피격사건 진상조사 결론 기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 실패와 관련해 김벌리 치를 미국 비밀경호국(SS) 국장이 23일(현지시간) 책임을 지고 결국 사임했다. 치를 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 “보안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최근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마음으로 국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치를 국장은 경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하고 그녀의 생명을 걸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새 경호국장 임명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13일에 벌어진 일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나는 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우리 모두는 그날 있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야의 유세 중 피격을 당해 오른쪽 귀 뒷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는 경호국은 당시 총격범이 유세장 인근 건물의 지붕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차단하지 않아 강한 비판을 받았다. /연말뉴스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